

불교사상 녹인 추상화 감상

하인두 10주기展 28일까지 가나아트센터

‘魂불, 빛의 회오리’ 등 1백여점 출품

묘환(妙環), 밀문(密門), 만다라 등 깨달음의 미학으로 70~80년대 한국현대미술을 이끌었던 하인두(1930~1989) 화백의 불교사상이 밀착되어 된 현대 추상화를 대거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하화백의 10주기를 회고해 28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전시장에서 열리는 ‘魂(魂)불, 그 빛의 회오리’展이 그것.

53년부터 앙포르말(살형성을 띤 추상표현주의) 운동의 선봉장이었던 하화백은 현대불교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선구자적 작가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회(魂), 율(律) 등 50~60년대 대표작에서 오방의 원색과 인드라망 등을 보는 듯한 추상적 문양 등 불교적 상징 체계를 화폭에 도입한 70~80년대 작품까지 1백여점이 출품돼 장엄한 화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평론가 오광수씨는 혼돈하고 다감한 원색, 여백의 변주가 신축적이며 구성적인 하화백의 작품을 두고 ‘불교의 독특한 우주관을 구현시킨 양식

이 조형화 과정을 통해 자리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하화백이 생의 말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화면 가득히 생명의 세계를 그려냈던 ‘혼(魂)불, 빛의 회오리’ 시리즈도 공개돼, 전시회 의미를 더했다.

이 시리즈는 생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빛과 색이라는 요소로 풀어냈기 때문에 이전 작품들에 비해 한결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다. 지독한 투병생활은 그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절망감보다는 오히려 삶과 예술에 대한 불꽃같은 의지를 불태우게 한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하화백의 예술 세계를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다. 1전시장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앙포르말 운동을 주도하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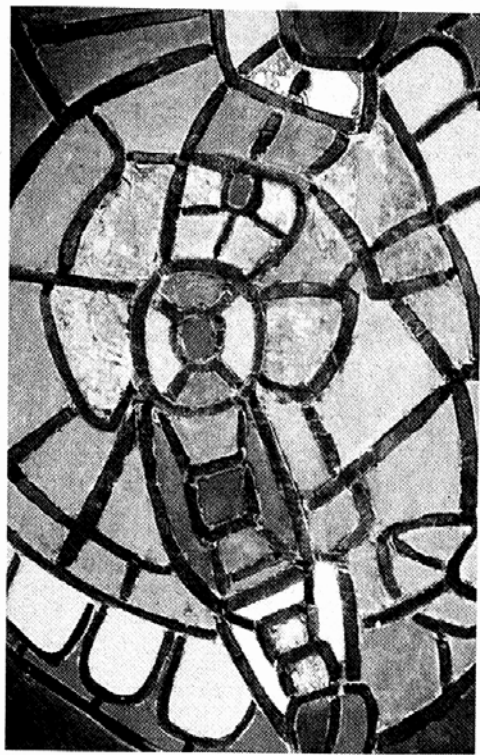
2전시장은 기하학적 패턴, 구상적 구성, 견고한 대칭미 등 그의 화면의 기본 틀이 짜이기 시작하는 70년대 이후이다. 이 시기의 변화는 80년대 들어 불교적 우주관을 구현시킨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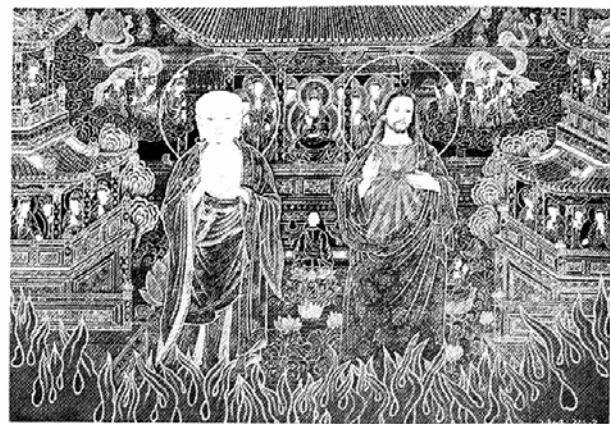
◇故 하인두 화백.

라’ 시리즈로 완성된다. 3전시장은 ‘혼(魂)불’ 시리즈. 죽을 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은 그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일반 전시의 관행을 깨고 4점의 미완성작도 함께 선보인다. “하나의 중심점이 모든 온갖 것들을 거느려 이끌고 온갖 것들이 제 나름의 다른 모양으로 하나의 중심에 집약되는 것. 그러므로 우주질서의 그 정화가 만다라요 바로 보살의 입김”이라는 하인두 화백의 말이 녹아 있는 이번 전시회는 불자들에게 도심 한 가운데서 정토의 세계를 인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02)720-1020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하인두작 ‘만다라’. 70~80년대 국내 회단을 이끌었던 하화백의 불교관이 잘 나타난 대표작이다.



◇고영을작 ‘지옥에서 극락으로’. 지장보살과 예수를 나란히 그려 이채롭다.

고영을 탕화展 ‘아름다운 세상’

30일까지 광주 북구청

고영을(전남대 강사)씨가 30일까지 광주 북구청 민민실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탕화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 고씨는 지장보살과 예수가 나란히 서있는 ‘지옥

에서 극락으로’와 연꽃 향기 그윽한 ‘아름다운 세상’을 비롯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등 탕화 30점을 선보이고 있다. 탕화의 전통도상에 얽매이지 않는 무애활발한 고유의 불화 세계를 엿볼수 있는 전시회. (062)225-8831

지암스님 사진전

소년소녀가장 돕기

전남지역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사진전이 16~21일 광주 신세계 백화점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 지암스님(전남

나주 다보사 주지)은 풍경, 동물, 사찰, 동승 등을 주제로 한 100여 점의 사진을 선보인다. 지암스님은 제18회 대한민국 문화 사진전 금상, 영국 런던국제사진전 은상 등을 수상한 사진작가이다. (062)360-1234

국립문화재연구원 창립 30주년 기획전-학술좌담회등 ‘풍성’

국립문화재연구원(소장 조유전)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문화재 조사 및 연구분야에서의 성과와 방향을 짚어보는 특별기획전, 국제학술좌담회 등을 마련한다.

‘문화재연구 3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23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는 특별기획전은 유적조사연구, 미술공예연구, 예능민속연구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 17일부터 1주일동안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국제학술좌담회에는 일본·중국·러시아 학자들을 초청, ‘21세기와 문화재연구’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게 된다. 특히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연구소 고고인류연구소와 함께 극동지역 아무르강 하류 유역의 유적에 대한

공공 학술조사도 추진중이다. 이밖에 문화재연구소의 30년간 활동을 소개하는 안내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지난 30년을 연구소의 외형적 성장기로 평가한 조유전소장은 “이번에 개최하는 ‘회고와 전망’展으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인력을 키우고 재정을 확보해 일본의 동경문화재연구소를 앞서는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울 때”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신라 고도(古都) 경주 개발이 한창이던 69년 ‘문화재연구실’로 발족한 이후 75년 독립부서로 승격, 발굴조사와 보존기능 다원화를 확대하는 등 30년간 국내 매장문화재 발굴·보존을 주도해 왔다.

日유출 고려동종 ‘귀향’

일본에 반출됐던 11세기경 고려 동종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 동종은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다카하라 히미코(71)씨가 선친에게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소장자가 한국에 귀국하는사를 밝힘에 따라 5일 귀환돼 8일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이 동종은 높이 71cm, 아랫쪽 지름 50cm, 무게 230kg 가량 나가는 것으로 국내에 48구 밖에 보고되지 않은 현존 고려 동종 48개와 비교할 때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문화재연구소는 띠를 두른 종 위쪽과 아래쪽 부분인 상대와 하대, 찢짜지 모양의 몸통 장식물인 유두가 여러개 붙어 있는 유곽, 비천, 종을 때리는 부분인 당좌가 뚜렷한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11세기경 전형적인 고려종 양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종은 원래 규슈 후쿠오카에 있던 수성원이란 사찰에 기증됐으나 이 절이 없어지는 바람에 다카하라씨 집안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연구소는 이 동종을 10일 연구소 개소 30주년을 기념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막되는 특별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17일에는 기증자 부부를 초청, 감사패를 전달키로 했다.



문화 단신

혜우스님 CD 출반 수행자 삶 담은 ‘추야몽’

순천 선암사 재주 혜우스님이 수행생활의 단편들을 노래로 담은 ‘추야몽(秋也夢)’(한소리레코드)을 CD와 카세트테이프로 펴냈다.

수행자의 절제된 삶을 잔잔한 기타선율에 담고 있는 이 음반에는 ‘청량사 가는 길’, ‘도랑의 백일홍’, ‘추야몽’, ‘그대를 만나고 싶다’ 등 10곡이 들어있다. 맑으면서도 정감있는 음성으로 노래를 한 혜우스님은 “부처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느낌들을 중생들에게 더 친숙하게 전하는 포교의 한 방편으로 음반을 내게됐다”고 말한다.

지장사 칠불좌상 강원도 문화재 지정

강원도는 10월 30일 통해 지장사 칠불좌상을 도 유형문화재 제126호로 지정 고시했다. 지장사 칠불좌상은 고려 중기(12세기)에 조성된 칠불로 당당한 어깨, 가슴의 양감이 풍만하게 조성되는등 고려전기의 불상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송광사 하사당 1461년 지었다”

문화재청 건립연대 적힌 명문 발견

숯지붕의 환기공과 같은 건축양식이 돋보여 보물 제263호로 지정된 전남 순천시 송광사 하사당의 건립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문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하사당 지붕을 해체 보수하던 중 이 건물에 1461년 5월 11일에 건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명문으로 쓴 명문을 중앙탑 상부에 설치된 종도리를 받치는 목재에서 발견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적외선 촬영기를 이용하여 판독한 결과 ‘천순오년신사오월십일일송광사(天順五年辛巳五月十一日松廣寺)’라고 쓰여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사당은 약 12평 규모의 송광사로 지붕 용마루에 돌출시켜 만든 숯지붕의 환기공이 특이하며 건물양식 등으로 보아 조선초기에 건립된 것으로만 알려져 왔으나, 건립연대가 확인돼 우리 나라 전통 목조건축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종욱 기자



◇송광사 하사당 건립연대가 기록된 명문.

하사당은 지붕기와가 노후되고 서까래와 도리 등의 일부 목재가 부식되어 건물이 앞쪽으로 조금씩 쏠리고 지붕이 처지는 현상이 발생, 문화재청이 8월 26일부터 지붕해체 보수공사를 실시해 왔다.

영주 부석사 세계유산 신청키로

영주 부석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신청대상으로 결정됐다. 경북도는 10월 29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영주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

정목록 신청대상으로 결정하고, 안동시 와룡면 가양리 228 광산 김씨공구당 고택 등 9건을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2건, 기념물 3건, 문화재 자료 4건)로 지정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완성하라

불자들을 위한 특별 강연회

나는 누구인가? 전생에 누구이며 무엇을 했을까?

나는 오래 전 아버지 골수 안에 별레(정충) 한마리였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수천 수 억마리중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나였습니다.

1차로 어느날 갑자기 음양이 합일되어 극열한 진동속에 나는 어머니의 자궁속으로 이동되어 난자를 만나 땃줄로 영양을 공급받으며 사람의 아들로 10개월동안 형성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2차로 어머니의 젖을 (액체) 먹고 발육되었습니다.

3차로 다시 고체 음식을 먹는 체질로 성장되었습니다.

4차로 다시 기식을 먹고 (하늘의 음식) 살 수 있는 체질로 개선해야 나는 완성이 됩니다. (즉, 부처가 된다. 또는 성불했다)

오늘날 불자들은 수 천년동안 자신을 완성에 보려고 여러 방법으로 수행을 해 왔지만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제는 윤회설의 고정 관념에서 초월합니다.

21세기는 나를 완성하는 새로운 생명 문화의 역사가 시작되며 생명문화가 세계를 지도하게 됩니다. 특별 강연회는 불자들을 모든 질병에서 예방시키는 법과 자신을 완성하는 수행법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나의 몸은 보이는 마음

너의 마음을 보려거든
너의 모습을 보라
너의 몸이 곧
너의 마음이니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닦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보이는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으라.
그러하면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은
부처가 되리라

특/강/요/지

- 나를 완성하는 길
- 만병이 오는 원인과 예방법
- 기의 실체와 음양순행의 원리
- 병증상은 수십 수 백가지로 나타나도 원인은 두가지 뿐이다.

..... 대체의학 음양침술의 실체 (비법)

대체의학 음양침술은 무엇인가?

음양침술은 우리 인체의 365혈을 대표로 7혈만 응용합니다. 예를 들면 두통, 편두통, 견비통, 요통, 팔, 다리, 손목, 발목, 좌골 신경통, 관절염,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한 증세, 급체 등으로 고통이 있을 때, 1-2월만 침을 놓으면 1-3분 이내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나는 것이 음양침술의 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양침술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음과 같은 3대 증상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남자들의 소화불량으로 가스가 차고 피로가 많이 오는 증상 등등 둘째: 여자들의 소화불량, 히스테리, 불면증, 피로권태, 얼굴기미 등등 셋째: 침이나 뜸이나 약으로도 치료가 안되는 증상 등을 알게 합니다.

음양침술은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가족은 물론이요, 이웃을 위하여도 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음양침술은 우리나라 침술역사상 처음 공개하는 대체의학이기 때문에 불자들에게 몸의 어느 부위가 아프신 분이냐 오랫동안 침을 시술하는 분이냐 의료진이나 모두 오셔서 나를 완성하는 이론강연과 더불어 직접 체험을 받아보시고 확실하고 신기한 감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자들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은 2회 특별 강연회를 갖습니다.

1회 : 오후 1시~4시 2회 : 오후 6시~9시

참가비 : 5,000원

음양시

관악구 신림4동 500-1
문의처: 02)861-5851~2 FAX 861-5852

위치안내

2호선 전철 신대방역에 하차하시고 1번 출구로 나오셔서 4거리를 건너면 신림 4동 피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담을 끼고 골목안 50m 정도 들어오셔서 (음양시) 간판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